

# 임진각·평화누리관광지 확대개발계획 7일 고시



[KFM 경기방송 = 김철호 기자] 경기도가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을 7일 고시합니다.

경기도가 조성한 평화누리공원(1백만4천㎡)와 파주시가 조성한 임진각관광지(9만5천㎡)에는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는데 진입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8년 완공 목표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에 182억원, 수리에 코타운 조성사업에 177억원, 야영장 설치에 2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DMZ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활용될 교각인 '독개다리'를 내년 하반기 완공 목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는 방문객 수의 비해 시설이나 내용이 부족다"면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 경기북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철호 seven5@nate.com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 경기도, 파주 임진각 관광지 379억원 들여 개발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경기도가 379억원을 투입해 파주 임진각과 평화누리 관광지를 개발합니다.

도는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습지생태학습원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진각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등을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문을 보면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의 임진각 관광지 47만7천여㎡에 2018년까지 379억원을 들여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항목별로는 도로와 주차장 등을 늘리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82억원,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에 177억원, 야영장 설치사업에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와 사용하지 않는 경의선 교각 '독개다리'는 내년에 개장됩니다. 오인환 kfmmodo@kfm.co.kr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7.5 cm

##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확대개발...경기도, 관련 계획 고시

[경인방송 - 구대서기자 kds@ifm.kr]

경기도는 오는 201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확대개발이 지정된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는 경기도가 2005년 조성한 평화누리공원 100만4천㎡와 파주시가 1991년 조성한 임진각관광지 9만5천㎡로 구성돼있습니다.

이 곳은 연간 6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관광지이지만, 협소한 주차공간과 혼잡한 진입도로로 인해 방문객들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82억원을 투입하고, 신규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 177억 원, 야영장 설치사업에 약 20억 원을 각각 투자합니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와 안보관광상품으로 활용할 미사용 경의선 교각인 '독개다리'는 2016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북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4.4 X 9.8 cm

# 임진각, 대표 안보 관광지로 키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과 평화누리에 2018년까지 습지생태학습원·야영장도 들어선다. 또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을 수립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계획안은 파주시가 1991년에 만든 임진각관광지 9만5,000㎡와 경기도가 2005년 조성한 평화누리공원 100만4,000㎡를 한데 묶어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경기도 379억 들여 편의시설 확충

습지생태학습원·야영장도 조성

관문점·DMZ 등과 시너지 효과 기대

1316 일원의 임진각 관광지(47만7,894㎡)에 379억원을 들여 공공편의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사업별로는 도로와 주차장 등을 늘리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82억원,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에 177억원, 야영장 설치사업에 2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또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와 사용하지 않는 경의선 교각 '독개다리'가 내년에 개장된다. 진입도로 개선과 부출입로 신설도 내년 말쯤 끝난다.

임진각과 평화누리는 그동안 연간 방문객 수(600만명)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진입도로가 혼잡한데다 주변환경이 열악해 경기북부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는 개발이 끝나면 이곳이 관문점이나 도라전망대 등 비무장지대(DMZ)와도 연계한 국내 대표 안보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북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1.1 X 9.5 cm

# 임진각·평화누리 통합개발 본격 추진

도, 2018년까지 휴양문화시설 조성

경기북부 대표 관광지인 임진각과 평화누리에 대한 통합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7일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18년까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일원의 임진각 관광

지(47만7천894㎡)에 379억원을 투입, 공공 편의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항목별로는 도로와 주차장 등을 늘리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82억원,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에 177억원, 야영장 설치사업에 2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DMZ생태관광지원센터와 인보관광상품으로 활용할 미사용 경의선 교각인 '독개다리'는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경진·권준우기자 lkj@kyeongin.com

11.7 X 7.2 cm

# 파주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개발

## 공공 편익·휴양 문화시설 등 조성 DMZ 안보 평화 관광사업 박차

경기도가 DMZ 안보 평화 관광사업을 위해 파주 임진각과 평화누리 관광지 개발에 나선다.

6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임진각·평화누리내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습지생태학습원(수리에코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진각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등을 7일 고시한다.

고시문을 보면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16 일대 임진각 관광지(47만7천894㎡)에 오는 2018년까지 379억원을 들여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항목별로는 도로와 주차장 등을 늘리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82억원,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에 177억원, 야영장 설치사업에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와 사용하지 않는 경의선 교각 '독개다리'가 내년 개장된다. 진입도로 개선과 부출입로 신설도 내년 하반기 완료된다. 이곳 관광지는 1991년 파주시가 조성한 임진각 관광지(9만5천㎡) 외에 도가

2005년 조성한 평화누리공원(100만4천㎡)까지를 포괄한다. 연간 600만명이 방문하며 관문점이나 도라전망대와 같은 비무장지대(DMZ) 관광지와도 연계돼 있다. 그동안 방문객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진입도로가 혼잡한데다 주변환경이 열악해 경기북부 대표 관광지로써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북부 지역 관광콘텐츠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토론'을 개최했다.

이강석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그동안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는 방문객 수에 비해 시설이나 내용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개발 계획

평화누리공원 100만4천㎡	임진각관광지 9만5천㎡	기반시설 예산 182억원	관광시설 예산 177억원	야영시설 예산 20억원
-------------------	-----------------	------------------	------------------	-----------------

경기도는 379억원을 투입해 파주 임진각과 평화누리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2018년 조성 완료 예정인 임진각 관광지 조감도. 사진=경기도북부청

# 2018년, 임진각 새모습 갖춘다

## 임진각·평화누리 확대개발 고시 道 “접경지 관광 패러다임 전환”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가 확대 개발된다.

경기도는 7일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을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평화누리공원(100만4천㎡)과 임진각관광지(9만5천㎡)에 기반시설과 신규관광시설, 야영장 등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182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177억원을 투입해 신규관광시설 수리에코타운을 조성한다. 또 20억원을 투자해 야영장도 설치한다. 경의선 교각인 ‘독게다리’는 2016년 하반기 개선공사가 완료돼 안보관광상품으로 활용된다. 임진각 진입도로와 부출입로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완료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관광지 확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통 등의 제 영향 평가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그동안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는 방문객 수의 비례 시설 등이 부실했다”면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는 연간 600만명 이상이 방문하지만, 협소한 주차공간과 혼잡한 진입도로로 인해 방문객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평화누리 주변 토지는 그동안 개발이 지연돼 임시 주차장으로만 활용됐다.

조윤성기자

11.3 X 19.5 cm

# 도, 379억 들여 파주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개발

지정·조성계획 승인 오늘 고시  
2018년까지 휴양시설 등 조성  
경기북부 대표관광지로 키워

경기도가 379억원을 투입해 파주 임진각과 평화누리 관광지를 개발한다.

도는 임진각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등을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고시에는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16원원의 임진각 관광지(47만7천894㎡)에 2018년까지 379억원을 들여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도는 도로,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82억원을 투입하고 신규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수리예코리온 조성사업에 177억원을 투자한다.

또 20억원을 들여 아양장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DMZ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활

용될 DMZ생태관광지원센터와 안보관광상품으로 활용할 미사용 경의선 교각인 '독재다리'는 2016년 하반기 재장하며 진입도로 개선과 부출입로 신설도 함께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개발이 지정된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는 경기도가 지난 2005년 조성한 평화누리공원 100만㎡ 초과 파주시가 1991년에 조성한 임진각관광지 9만5천㎡로 구성된다.

이곳에는 연간 6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관광지다.

특히 관문집과 도라전망대 등 DMZ 관광명소가 많아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는 방문객 수의 비해 시설이나 내용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병실정부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 道,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개발 팔건어

주차공간 협소·진입로 혼잡 등 열악한 시설 탓 '방문객 불편' 호소

2018년까지 379억원 투입 ... "경기북부 관광 패러다임 전환점 될 것"

경기도가 오는 2018년까지 379억원을 투입해 파주 임진각과 평화누리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 확대개발 계획'을 7일 고시할 계획이다.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는 도가 2005년 조성한 평화누리공원 100만4000㎡와 파주시가 1991년에 조성한 임진각관광지 9만5000㎡로 구성되었으며, 연간 6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경기북부의 대표적 관광지다.

특히, 판문점과 도라전망대 등 DMZ 관광명소가 많아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다.

하지만, 협소한 주차공간과 혼잡한 진입도로로 인해 방문객들의 불편이 잇따랐다.

특히, 평화누리 주변 도지는 그동안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경기북부의 대표 관광지라는 위상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개발 토지 개발계획을 포함한 '관광지 확대개발 기본계획'을 2012년 수립하고, 이후 환경·교통 등의 제 영향 평가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이번에 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도로,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82억원을 투입하고, 신규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에 177억원을 투입한다.

또, 야영장 설치사업에 약 20억원이 투입된다.

DMZ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활용될 DMZ생태관광지원센터와 안보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미사용 경의선 교각인 '독개다리'는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지 확대에 걸맞은 도로체계 조성을 위해 진입도로 개선과 부출입로 신설도 내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강석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그동안 임진각·평화누리 관광지는 방문객 수에 비해 시설이나 내용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기자 iesus ee@incheonilbo.com

17.5 X 14.0 cm

## 파주 임진각 관광지 개발 조감도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는 379억원을 투입해 파주 임진각과 평화누리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2018년 조성 완료 예정인 임진각 관광지 조감도. 2015.12.6 <<경기도북부청 제공>>

suki@yna.co.kr

14.4 X 12.6 cm